

목회자 칼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유대 땅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셨을 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마: 15:25~26)라는 말씀까지 하시며 매몰차게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 이 여인은 보통 어머니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옹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마 15:27).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여인을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이 여인을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는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가 딸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주어졌고, 이 은혜를 통하여 딸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 - 중고등부 활동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목사님께서 '효도가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어른들께 남선교회,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카네이션과 조그마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어진 점심시간에는 대학청년부에서 토요일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다같이 나누었습니다. 요리 경험이 많지 않지만 교회의 어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두가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음식에 담겨서인지 모두들 맛있게 식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매월 1회 특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선생님과 학생 약 25명이 세 팀으로 나누어 미션 수행 활동을 했습니다. 옷놀이를 응용해서 옷을 던져서 나온 자리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임으로 출발 지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조은아, 박창용 두 분 중고등부 간사께서 다양한 미션들, 예를 들면, 팀 별 윗몸일으키기 100개 하기,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흩어져 있는 성경문구 말씀 순서대로 완성하기, 나무젓가락 입에 물고 양과령 전달하기, 뒤로 멀리뛰기 등의 미션을 준비해 주셨고 이 미션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완수해야 다음 미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모두들 열심히 참여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 집회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대학청년부 주최로 교회 잔디밭에서 찬양집회를 하였습니다. 약 70명의 교인들이 잘 준비된 찬양과 율동을 감상하고 또 때로는 흥겹게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찬양 중간 중간에 담임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 개인과 가정, 지역과 교회를 위해 모든 분들의 힘을 합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를 위해 찬양 팀, 깃발 팀 그리고 위십 팀 등 세 팀으로 나누어 세 달 전에 계획을 세우고 주말을 이용하여 꾸준히 연습을 하였습니다. 한아인 찬양 간사를 중심으로 한 찬양 팀과 깃발 및 위십 안무를 맡은 송성경 청년부 회원 그리고 깃발 공연을 맡은 여 집사님들과 위십을 담당한 중고등부 학생 등이 연습하고 공연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집회를 통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야외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담임목사님, 송수동, 한성덕 집사님과 이재혁 학생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전 교 인 체 육 대 회

15일 오후에 약 4시간(1시부터 5시까지)에 걸쳐 신방 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본 게임에 앞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큰 공을 굴리고 있는 꿈자리 어린이



냉정한 승부의 세계 과연 승자는?

폼 죽이죠? 홈런을 목표로! 축구가 아닙니다.



어린이들과 축구를 하고 있는 여자 선생님들

경기를 위해 일 년을 기다렸다는 정예 선수들



미션릴레이 1단계(총 6단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PASTOR'S SERMON

When Jesus was in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 mother of a girl who was demon-possessed came to him and asked his mercy for her daughter. Contrary to our expectation, Jesus did not answer to her asking, instead treated her harshly by saying,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Matthew 15:26).

Even for Jesus' heartless answer, the mother, without losing any her temper, said, "bu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Her answer of full faith prevailed over Jesus' test and her daughter was immediately healed from the suffering.

Then, what is the reason Jesus tested the woman by treating her heartlessly? It is because Jesus intended to make her faith big by making her ask for the grace of even crumbs. In Jesus, even the smallest grace can produce a powerful effect.

So, in order for us to give a good effect to our children, we, as parents, have to live in the grace of God as God's children and also pray for our children so that they may enjoy God's grace and power in their lives.

2016년 6월 주요 일정		
일시	행사	주관
11일	지인 초청 모임	남선교회
25일	중고등부 볼링 모임	중고등부
26일	창립기념주일	새빛교회

이 내용은 새빛교회 홈페이지 교제와나눔/교회소식방에 있습니다.

새 빛 소 식 2016-5(17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새 빛 교회

www.sbch.net

055)251-0669

(51118)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268-2

담임 : 조신제 목사 (neolux21@naver.com)

예 배 시 간 안 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주일~금 오전 5: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30
유치부·꿈자리	주일 오후 2: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40
대학·청년부	토요일 저녁 7:30